시교육청 정책에 반기든 교장들

광주 사립 교장협, 고교배정 방식 변경 반대

학부모단체도 "성적 기준 학교 배정 안돼"

광주 사립고 교장들이 시교육청의 2013학년도(현재 중3 해당) 고교 배정방식 변경 추진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학교에 고루 배정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학부모 단체는 "성적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일반계 사립학교장 협의회는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학교장 연찬회에 참석, 장휘국 교육감에게 A4 용지 4장 분량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장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된 각종 정책 등에 대해 그동안 침묵해오던 사립학교 교장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립학교장 협의회에는 광주지역 전체 일반계 고교의 70%에 달하는 34개 사립고교 교장이 참여하고 있다.

교장단은 건의문에서 공·사립 학력차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고교 배정 방식 변경에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해당되는 2013년 고교배정방식을 23일 입학전형위원회와 교육감 결재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5년 동안 유지해온 고교 배정 시스템을 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소수 의견에 따라 바꾸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의 30%인 공립고를 살리기 위해 70%에 달하는 사립고교를 흔들어 단시일내에 공·사립학력차를 줄이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교육청이 주장한 대로 공·사립 학력향상도 차가 거의 없다면 왜 굳이 배정방식을 바꾸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교장들은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완화와 교육청의 잦은 공문발송 자제 등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야간자율학습) 지침의 명분으로 삼았던 시민여론조사도 공·사립비율(30 : 70)조차 고려하지 않은 졸속이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없는 고교 배정방식 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광주시의회의 진상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고 학생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고교 선택에 있어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다"며 "공립학교가 사립보다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 근본원인을 공립학교 학생 지도방식, 학습방법 개선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3학년도 고교 배정안=중학교 내신 등급별로 학생을 공·사립학교에 골고루 배치하는 방식. 우수 학생들의 사립학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 현 고교 추첨 배정은 1, 2지망 고교를 선택 지원하는 '선지원'(2개교 선택)에서 정원의 40%를 선발했으며, 중학교를 기준으로 한 배정 가능 고교 가운데서 5개교를 지망하는 '후지원'에서 나머지 60%를 추첨 배정했다.

대테러 모의 훈련 21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테러 모의 훈련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가상 테러범을 진압한 뒤 인질을 구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오는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실시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업시간 못채운 학생 200여명에 학점

감사원, 전남도립대에 정원 감축 등 요구

전남도립대학이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성적을 주거나 정상적인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직장인을 신입생으로 선발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남도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21일 이같은 지적내용을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립대는 직장에 재직 중인 303명 가운데 209명의 학생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했음에도 모든 교과목(2011년 1학기)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학사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전남도립대는 직장에 재직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35명에 대해 시험일을 포함해 3일만 출석하게 했다. 이중 A학과 L씨의 경우 수업시수 4분의 1 이상을 결석했는데도 9과목(23학점) 성적(평점 3.57)을 부여하는 등 69명 전원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줬다.

또 전남도립대 B학과에서는 지난해 수도권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10명을 선발해 1학기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전원에게 9과목(22학점) 학점을 줬다.

C학과도 어린이 보육시설에 재직하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이 곤란한 11명을 선발해 수업시 수 4분의 1 이상을 결석했는데도 2011학년도 1학기 모든 교과목을 수료한 것처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립대 학칙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출석미달자의 성적은 취소하도록 돼 있다. 또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은 해당 과목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남도립대 총장에게 부당하게 부여한 성적을 취소할 것과 수업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직장인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일이 없도록 정원을 감축하거나 유사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건만남' 꼬임에 빠졌다가 그만…

성매수남 유인 미성년자와 성관계

합의금 갈취한 조폭 등 5명 붙잡아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원했던 회사원 김모(37)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일명 '조건만남'을 신청했다. 며칠 후 김씨는 약속장소인 광주시 북구의 모 원룸을 찾았고 그 곳에서 만남을 신청한 A(17)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라는 건장한 청년들이 방안으로 들이 닥쳤다. 청년들은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무슨 짓을 했느냐"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성매매를 유혹하는 10대 소녀 뒤에 도사리고 있던 폭력배의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다.

광주 북부경찰은 2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수락한 성매수남성들을 협박, 금품을 빼앗은 김모(25)씨 등 조직폭력배 남성 3명과 채팅을 전담한 B(19)양 등 5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1월27일 새벽 2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원룸에서 채팅역할을 맡은 B양이 수 일전 채팅으로 약속해 유인한 성매수남 김모(37)씨와 A양이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A양은 일이 끝나자 곧바로 '오빠'들에게 핸드폰 문자로 신호를 보냈고, 이 때 원룸에 들이닥친 김씨 등이 흉기로 위협해 빼앗은 신용카드로 인근 편의점에서 417만원을 인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모두 9명의 성매수남성으로부터 976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상당수 남성들이 유흥업소보다 비용이 싸고 어린 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채팅을 한다는 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당한 성매수남 9명은 대부분 30~40대였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빙초산에 절이고 인산염으로 무게 늘리고

'못믿을' 가오리·오징어 유통

160억대 판매 업체 적발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를 천연 발효제품으로 속이고 인산염에 담가 무게를 늘린 오징어를 전국에 유통시킨 수산물 가공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와 인산염에 담가 무게를 늘려 전국 냉면집이나 중국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사 대표 정모(35)씨를 구속하고 B사 대표 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해파리를 판매하면서 표시된 중량보다 적은 내용물을 넣은 C사 대표 이모(5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사와 B사는 2008년부터 오징어를 인산염에 담가 육질을 연하게 하고 무게를 늘려 최근까지 3천122t(시가 144억원)을 전국의 중국음식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또 같은 기간에 베트남에서 수입한 가오리를 빙초산에 절여 신맛을 낸 뒤 자연발효시킨 것처럼 속여 전국의 냉면집에 부재료(고명용)로 188t(14억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오징어의 경우 인산염에 담가 최대한 중량을 늘린 뒤 여러 차례 물을 바르는 속칭 '물코팅'을 통해 10~30%의 중량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오리 신맛을 내기위해 사용한 빙초산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순도 20% 초과시 독극물로 분류하고 있지만 A사는 빙초산을 첨가한다는 내용을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켰다고 해경은 밝혔다.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안구장애를 유발한다. 한번에 20~50g을 섭취하면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

고교 중퇴생 목매 숨져

지난 20일 오전 9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아파트에서 김모(18)군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누나(20)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누나는 경찰에서 "전날부터 동생이 전화도 안 받고 집 번호키도 변경돼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 갔는데 동생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된 유서에서는 "아버지께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군은 지난해 인문계고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서천서 美 전투기 추락

21일 낮 12시14분께 충남 서천군 화양면 화촌리에서 훈련중이던 미군 F-16 전투기가 논으로 추락했다.

조종사 1명은 비상 탈출해 군 당국이 보호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전투기는 대파됐으나 들판으로 추락해 민간인이나 민가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추락한 전투기는 우리 공군 소속이 아니며 미군측에서 현장을 통제하면서 사고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미 비행단 소속 병사 등이 급파돼 전투기 잔해 등을 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폭탄 만들어 실험 동영상' 무서운 10대

쌍나팔

○…인터넷에 폭발물 제조방법과 직접 제조한 폭발물 폭파 실험 동영상을 올린 '무서운'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고등학생 김모(16)군은 지난 1월 직접 만들어 촬영한 화약 및 연막탄 발화 동영상과 폭발물 제조방법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중학생 김모(15)군은 사제폭탄 도면과 제작과정 및 직접 만든 사제폭탄 발화 동영상을 지난 12월 자신의 화약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

○…경찰은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위험 차단을 위해 폭발물 제조 방법이나 폭파실험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4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1타경 32899	1	나주시 송월동 660 송월주공아파트 107동 14층 1403호 49.96㎡	아파트	46,000,000 46,000,000	
2011타경 35263	1	북구 용봉동 630 1동 12층 1307호 97.01㎡	아파트	110,000,000 110,000,000	
2011타경 36006	1	북구 운암동 1033 금호아파트 1동 9층 901호84.748㎡[공유자박영완지분13분의2전부]	아파트	20,769,230 20,769,230	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1회만허용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1타경 7626	1	동구 산수동 517-2 505.2㎡	대	577,661,670 577,661,670	일괄매각
		동소 517-2 1층170.01㎡[6가구] 2층170.01㎡[6가구] 3층151.11㎡[4가구]	다가구주택		
2011타경 33595	1	동구 산수동 554-17 117.6㎡	대	128,014,420 128,014,4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554-17 1층66.61㎡[점포] 2층61.33㎡[주택] 부속건물 2.00㎡[변소] 제시외 점포일부 7.9㎡	점포및주택		
2011타경 34956	1	동구 지산동 717-10 191.7㎡[공유자최광현지분3분의1전부]	대	105,094,620 105,094,6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동소 717-10 1층99.17㎡ 2층90.57㎡ 부속건물 2.31㎡[변소] 제시외 통로 등 17.16㎡[717-10번토지와지분동일]	점포및주택		
2011타경 35560	1	광산구 송대동 207 135㎡	대	35,365,260 35,365,26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207 31.82㎡ 부속건물 10.78㎡[변소] 제시외 가추 등 31.4㎡	단독주택		
2011타경 36754	2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359-2 2760㎡	대	34,253,600 34,253,600	일괄매각.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각공
		동소359-2 128㎡ 부속건물 46㎡[창고-현주택] 46㎡[주택] 25㎡[주택] 31㎡[창고] 72	단독주택		
2011타경 36754	2	㎡[창고] 74㎡[창고] 82㎡[창고-현주택] 제시외 창고등18.1㎡[제시외건물포함매각]			유자장재철지분28분의4전부
	3	동소 276-2 661㎡[공유자장재철지분28분의4전부]	대	13,244,000 13,244,000	일괄매각.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동소 276-2 221.4㎡[276-2토지와지분동일]	단독주택		
2011타경 37016	1	동구 계림동 523-21 121㎡	대	98,995,100 98,995,1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523-21 1층71.32㎡ 2층66.62㎡ 부속건물 0.64㎡[변소] 제시외 다용도실11.5㎡	소매점및주택		
[대지/임야/전답]					
2011타경 25525	1	나주시 영산동 798-6 3000㎡	답	63,000,000 63,0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34826	1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278 1365㎡	전	8,872,500 8,872,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36754	1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358 498㎡[공유자장재철지분28분의5전부]	답	7,528,200 7,528,2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동소 388 853㎡[358번지와지분동일][매각외비닐하우스[16㎡]소재.일부도로사용]	답		
	4	북구 청풍동 1107 1306㎡[공유자장재철지분11060분의180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1기소재]	전	402,570 402,570	
2011타경 36860	1	서구 양동 370-3 160㎡	전	138,160,000 138,160,000	일괄매각
		동소 370-5 154㎡	전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1타경 20940	1	남구 월산동 955-2 216.9㎡	대	255,010,500 255,010,500	일괄매각
		동소 955-2 114.66㎡[실측면적약152.1㎡]	근린시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2. 4. 5.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2. 4. 12.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2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용민